

추석연휴에 사망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추석 연휴 때에 평소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고 말지만 사실 이에는 엄청난 영(靈)의 세계의 비밀이 숨어있다. 먼저 관련 뉴스를 보자.

추석 연휴 전후 산업재해 사망자 20% 증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산업현장 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2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사망사고자 수는 일평균 227명으로, 그 외 기간(1,88명) 대비 20.7%(0.39명) 높았다. 고용부는 통상 추석 연휴 전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휴가 지난 후에는 연휴 기간 중 지었던 기계를 정비·재가동하면서 ‘끼임’ 등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뉴스, 8월 25일자 <추석 연휴 전후 산업재해 사망자 20% ↑...> 안전보건 대책 수립·이행< 기사 중에서 발췌

위 기사는 산업재해만을 다룬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안전사고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발표된 것은 없지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 추석 연휴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추석의 유래부터 살펴보자.

추석 명절 삼국시대 때부터 지내

추석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명절로 지냈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



9.1. 추석연휴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儒理王) 때 6부(六部)의 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16일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배를 짜게 했다. 8월 보름이 되면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다. 이때 <회소곡 會蘇曲>이라는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는데 이를 가라고 불렀다. 고려시대에도 추석명절을 쇠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선대 왕에게 추석제(秋夕祭)를 지낸 기록이 있다. 1518년(중종 13)에는 설·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지기도 했다. (엠편스 백과사전 참조)

우리는 추석날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낸다. 설날과는 달리 흰 떡국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햅쌀로 술을 빚고 햅곡식으로 송편을 만들고 다과를 올려 차례를 지내는 것이 상례이다. 조상님께 차례를 지낼 때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고 자신의 직계 조상님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풍양속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독자들

이 많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사자마귀들이 날뛰게 된다

구세주 조희성남께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날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즉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신 속에 있는 사자마귀 때문인데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자마귀를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명절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영의 세계를 소상히 알고 있는 구세주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인 주체가 바로 마귀인데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 사자마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 그 사자마귀가 준동하게 되어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후에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평시와 전도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영생학을 전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도를 방해하고 심지어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사자마귀가 발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가 사자마귀의 발동에 기인한 것이며, 왜 죽은 사람을 구세주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의 주장함 안에서 추석을 보내자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구세주께서도 기쁘게 추석과 같은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부정하면서 풍속을 거스르는 잘못된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구세주께서는 한국 토착 종교이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금지시키고 반대하겠는가. 다만 사자마귀의 발동을 막아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추석을 쇠기는 하되 구세주 하나님의 주장함 안에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가 출현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 세상이다. 마귀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가 그동안 좋은 것,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 속에 파리를 틀고 있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미풍양속이라고 하여도 잘못 지내면 마귀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명절이 된다. 우리는 추석날 인류의 첫 조상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그분의 주장함 안에서 뜻있게 보내야 하겠다. 구세주의 바람은 오직 온 인류의 영생과 행복, 그리고 평화번영을 명심하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0>
“무엇 많이 아는 사람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구원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다. 차라리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다.

성경에도 어린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어린이와 같이 알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얼 많이 아는 척하고 또 많이 아는 사람

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될 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 모든 것을 던져 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영이사전을 달달 외울 정도면 무얼 몰랐겠는가? 그 조희성의 영이 죽어 없어진 것이다.*

CESNUR참관기-한강현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회장 발표논문

이긴자에 의한 종교혁명과 승리제단의 비전

세계신종교운동연구에 관련된 국제 학술대회인 2022년 CESNUR의 특별 세션 ‘승리제단’ 관련 마지막 논문발표자는 한강현 국제신인류문화학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기초연설과 동일한 주제를 먼저 발표한 4명의 발표자들의 주제들과 서로 소통되는 총론적인 관점에서 ‘승리제단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종교혁명으로서의 영생신앙’에 관한 논문내용을 한국신종교운동 외부연구자의 입장에서 마무리하였다.

모든 예언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한 회장의 논문발표는 “Who will ring the Golden Bell(황금종은 누가 울리나) - Going to Heaven after death or Staying Alive in an Immortal Mountain(사후 천국의 속살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사약이 있는 삼신산에서 살아 영생할 것인가) - 라는 주제어로부터 시작되었다. 발표자에 의하면 승리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로불사를 향한 영생신앙’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꿈과 소망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천도교를 창교한 수운 최제우 천사로부터 시작된 1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신종교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개벽사상’의 궁극적인 목표와 ‘동학혁명’이 마지막 열매 맺는 자리로 나타나는 신문화 현상, 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전 예언의 말씀이 현재 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승리제단’의 신종교운동은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차원의 정신개벽인 동시에 기존 세계종교문화와 철학 및 낡고 병든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종교와 학문의 대혁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5대공약의 실천은 상제재림의 과제

둘째, 이긴자가 설법한 혁신적 구원론과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의 ‘5대 공약’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하늘님이 승리하여 천도문을 열고 내려온 ‘상제재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류가 고대하던 참 구세주의 권능과 자력에 해당 되는 ‘감추었던 만계 모든 경전 예언의 말씀이 현재 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승리제단’의 신종교운동은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차원의 정신개벽인 동시에 기존 세계종교문화와 철학 및 낡고 병든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종교와 학문의 대혁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넷째, 인류역사상 어느 누구도 설하지 못한 유례없는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의 새 말씀과 새 찬송이 승리제단에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학구적인 자세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대사의 속세이며 그 해답을 승리제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승리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논문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상으로 CESNUR 참관기 연재를 5회 연재로 마무리하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승리제단 관련 특별 세션이 마련되기까지 ‘승리제단’ 신종교 전문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2011년 대만국제 학술대회부터 10년 이상 꾸준히 해외학술행동을 계속해 온 한 회장의 노력과 성과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어서 빨리 구원선에 세계인들이 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김영숙 승사 / 천안제단

슈퍼 태풍 힌남노에 대한 단상

2003년 구세주의 재판 때의 일이다. 수원지검 강력부고 이경재부장검사는 구세주 조희성남에게 이렇게 물었다. “피고인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리나라에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한다고 말했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희성남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 매미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태풍을 막는다는 말은 거짓

말 아니요?” 그러자 조희성남께서는 “이 사람이 23년간 태풍을 막고 비를 못 오게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매미가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렇다면 태풍을 못 막았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조희성남께서는 “이 사람이 중부지방 위로 매미가 더 불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공판검사가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하든 구세주를 사형판결을 받게 하려던 이경재 검사는 구세주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냥기가 꺾이고 말았다.

사실 매미는 삼천포에 상륙, 영남지방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나갔다. 만일 매미가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관통했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지만 구세주의 능력으로 그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태풍

을 막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직접 태풍을 일으키는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실제적인 일이다. 태풍을 막기 위해서는 마치 럭비선수가 스크럼을 짜서 상대와 힘겨루기를 하듯이 구세주는 자신의 분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태풍을 일으키는 마귀와 대결을 하는 것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매미를 능가하는 수퍼 태풍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구세주를 배출한 우리 한국을 괴롭히려려고 하지만, 매미를 막은 구세주의 엄청난 능력으로 힌남노도 중형태풍으로 축소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나갔던 것이다.*

구세주 예배 말씀집

8

신간서적
승리제단 4구용

2001년 5월
<안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금 본문공비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8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